

믿음으로 (로마서 4:1-12)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이다. 로마서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힘들어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학의 중요한 포인트를 모르면 질문이 나올 때 대답을 하지 못한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되어진다. 모든 부분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 지식이 가다가 말면 삶속에서 일어난 질문들을 해결을 하지 못한다. 오늘도 이런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지난 주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초유의 일을 봤다. 언약궤가 원수의 나라에 빼앗긴 것이다. 그 전쟁을 이기고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사람도 더 많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 두명도 죽고 대제사장도 죽었다. 그리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고 저주 섞인 말을 남기고 죽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도 아무도 언약이 잘못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올때에는 함성을 질러서 땅이 진동할 정도라고 하였다. 그 때는 그 함성소리에 잡혀서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해도 지금은 문제 끝나고 결론 나왔다. 그러면 차분하게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그 때라도 고쳐놔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끝이라는 것은 없다. 무조건 앞으로 향하여 새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눈을 가진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것인데 말이다. 이 한사람을 불렀는데 그것이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이 무슨 능력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살리는 것이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언약을 나라에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답은 언약이라고 수없이 이야기 한다. 언약을 세우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운다. 그런데 전부 언약궤 빼앗겼다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속에는 간혹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수면에 떠오르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언약은 양보하지 않으신다. 모든 죄 다 용서하실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다른 신이 자리잡는 것은 용서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언약을 배신하는 것은 어디서든 용서받을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리 내려야 한다. 자꾸 각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을 결론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이다.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아브라함을 들고 나왔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다했하면 다 끔찍 못한다. 다 무릎 꿇는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할례로 구원받은게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기록이 창세기 15: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별을 보여줄 때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말하기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자랑하겠지만 믿음으로 된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쓰여진 책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듣는 것이다.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인 것이다. 그리고 그 때까지 바울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할례에 대해서도 말하면 할례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할례는 필요 없다고 자른 사람은 사도바울 말고 없었다. 이런 소리도 아주 시대적인 메시지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것을 예를 들어서 갖다 대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할례 이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는 아무도 못한다. 베드로는 이런 실력 안된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했는데 신학적 논리가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이렇다고 예를 들어 말한 사람은 사도바울 밖에 없다. 믿음으로 되지 다른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을 로마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할례가 무엇인지를 재해석했다. 그것은 할례는 인친것이라는 것이다. 도장찍는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할례 없을 때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이다. 그러니 할례는 구원을 받는 원인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구원 받은 자에 대한 구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당시 믿는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선이 그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와서 구약을 펴 놓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나온 것이다. 아마 많이 괴로웠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것이라고 하였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시작되었다. 아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15장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다.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백성중에서 끊어진다. 할례 안 받으면. 딱 써 놔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새로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도바울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왔지만 그 이전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이다. 노아도 할례 안 받았다. 그러면 노아가 지옥 갔는가?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는가? 아담도 마찬가지이다. 아담은 죄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출발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믿는 모든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왔다. 아담은 죄인뿐 아니라 의인이기도 하다. 우리와 같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와 21절 희생제사, 아담은 이것을 받은 사람이다. 당연히 이해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와서 뱀의 머리를 꺾것과 십자가의 구원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의 예표인 희생제사를 알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였다. 오실자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런데 할례 안 받았다. 그러면 지옥 갔는가? 오실자의 모형이 지옥가는데 누가 천국 가겠는가? 그래서 사도바울이 할례를 다시 해석했는데 할례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의 인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할례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있다. 유월절이 그 중 하나이고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출 12:14에 보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였다. 하나님 말씀이다. 안 변한다. 그러면 지금도 대대로 영원히 해야 한다.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출 12:19에 보면 무교병 먹는 것에 대해서 나온다. 이레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도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유교물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아주 엄하다. 타국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유교병 먹으면 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유월절 지키는 것, 무교병 먹는 것은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으로 보인다. 할례도 그렇다. 그런데 아가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노아는 어찌 되는가? 에녹은 죽지도 않고 승천하였다. 유월절을 아는가? 안식일도 모르고 승천 바로 해버렸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 지키는 것과 유월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본 언약 안에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새로운 해석을 했는데 할례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다. 근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21절 희생제사이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방법이 율법인 것이다. 그 율법 안에 할례도 있고 유월절도 안식일도 있다.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설명하는데 그걸 모르면 죽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근본 언약 안에 있는 비밀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나 유월절 안식일은 누리는 방법이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구원과 관련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원과 관련된 절대적인 언약은 십자가의 보혈이고 방법은 믿음이다.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모든 약속은 아무리 커 보여도 근본언약의 권세를 깨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근본 언약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근본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을 인치는 방법중 하나가 할례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내용을 잘 지키면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이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인되어 세상 살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할례, 율법을 지키게 한 것이라는 것이 사도바울의 해석이다.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인친것이라는 것이다. 할례가. 일어난 결과에 대해 확인한 것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절대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나 21절,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거나 회석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넘어설 수 없고 절대 언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 언약을 잘 살려서 축복 받고 증인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크고 완전하게 되는 길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언약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신약 때는 믿음이고 구약은 율법,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것 외에 모든 율법과 제도 절기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할례는 인친것이라는 것과 관련한 해석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끝이고 내용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다.

2. 시작은 은혜

그런데 시작은 은혜로 시작된 것이다. 4-8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시에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다.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데도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샅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주어지면 은혜인 것이다. 그런데 혹시 조금 뭐 했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보수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신앙이 연약하고 근본원리를 잘 모를 때에는 이런 생각 순간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1: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였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창세전에 한 것이어서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꾸 나의 행위에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다. 요한복음 15: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택하셨다. 1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유없는 계획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다. 왜인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은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 원인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누가 믿음을 만들겠는가? 어찌되었든 이유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살고 이웃 살리고 세상 살리라는 것이다. 이 구원, 언약을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누리나?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누리는 방법이다. 지금은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완성해주셨으므로. 주일에 유월절을 행하면 된다. 예배때 인생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된다. 구약에 쓰여진 내용이 그냥 쓰여진 것아니고 지나간 것도 아니다. 마태복음 5:17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였다. 그러면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 그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아닌가?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을 내 가슴에 지키면 그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참된 안식, 모든 것을 정복하는 평안안인가? 할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권세이다.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매일 받는다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평생 누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이 언약이 되기 바란다. 우리가 로마서는 많은 교리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누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정말로 언약이 되고 말씀이 되어서 지속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많은 증거를 보고 진짜 인생 정복하고 사람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란다.